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2022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nited Arab Emirates)



전주시의회
사무국

목 차

I. 출 장 개 요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2
III. 배경 및 목적	3
IV. 기 대 효 과	7
V. 국 가 소 개	8
VI. 출 장 일 정	13
VII. 출장단 구성	15

2022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I 출 장 개 요

- 기 간 : 2022년 12월 중
- 국 가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 분 야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친환경 스마트 도시 선진사례 연구
- 인 원 : 22명
- 소요경비 : 3,160,000원/21인(자부담 160,000원)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항공운임 1,700,000원
 - ▶ 지급기준(일비 · 식비 · 숙박비) [단위: 1인/USD 1330.00원 / '22. 11. 14.기준]

구 분	총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의 원	1,082	1,439,060	6	30	180	6	59	354	4	137	548
직 원	1,082	1,439,060	6	30	180	6	59	354	4	137	548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연수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 의원 : 3,000,000원 × 12명 = 36,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 수행직원 : 3,000,000원 × 4명 = 12,000,000원
 - 예산과목 : 의회 운영 지원,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방문 수행(국제화여비)

○ 연수방법

- ▶ 용역 수행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
 - 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현지교통, 보험가입, 안내 등 전반
- ▶ 방문기관 선정 : 연수 참여의원 선정(간담회) ⇨ 현지 코디안내
 - 의회사무국 : 방문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등 공문시행
 - 용역업체 : 기관방문 사전협의, 방문대상자 및 보조자료 준비, 현지 전문 코디 활용 진행 등

II 심사근거 및 절차

□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36호, 2019. 3. 28.)

□ 추진계획

- 연수지 및 테마 선정 : 완료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 : 11. 30.(수)
- 용역업체 모집 공고 : 12. 1.(목) ~ 12. 12.(월) / 11일간
- 제안신청서 접수 : 12. 1.(목) ~ 12. 12.(월) / 11일간
- 용역업체 선정심사 : 12. 13.(화)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2. 14.(수)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12. 15.(목)
- 의원국외연수시행 : 12. 19.(월) ~ 12. 24.(금) / 비회기중

III 배경 및 목적

□ 출장배경

- 최근 관광, 박람회 및 컨벤션 유치, 친환경 도시개발, 스마트 시티 구축 등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전주시 미래비전의 도시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바탕으로 친환경 또는 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구축과 함께 MICE 산업국가로 도약한 ‘아랍에미리트’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함

□ 출장목적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산업

- 도시 개발 산업은 UAE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대형 산업이다. 특히 두바이는 2020 두바이엑스포를 자국 경제의 전환점으로 보고 엑스포 대비 상업, 주거시설과 각종 엔터테인먼트 도시 개발에 열을 올렸다. 도시 개발 산업은 UAE 프로젝트 시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누적된 건설 산업 계약 수는 총 5,380 건으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 도시 개발을 통한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는 중동 지역의 국제 무역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 월드트레이드 센터는 현재 지역 최대 규모의 이벤트 및 전시 복합 단지이다. 중동 지역 비즈니스 관광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규모, 자원, 일정에 맞춘 이벤트를 개최하며 MICE 산업을 이끌고 있다.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는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두바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두바이 관광명소, 레스토랑과 호텔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매년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로 2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는 두바이의 과거와 미래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 전시업체, 방문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또한 두바이 랜드마크이자 세계 최고 높이인 부르즈 칼리파(Burj Khalifa) 타워는 관광객들이 거의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관광 인프라와 유동인구 등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4만개 이상의 일자리 고용 효과 발생시켰다.

- 2021년 3월 발표된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의 주제는 ‘지속가능성’으로 도시와 환경의 조화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한편 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관광 거주 지역 개발을 지속하고 대중교통 및 녹지대를 조성해 환경적인 문제에 대처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두바이 내 녹지대와 여가 공간을 2배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주거지역 단지 내에는 학교, 병원, 레저시설의 추가 조성을 통해 서비스 인프라 지역을 연계하고 이동의 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등 지속가능한 이동 수단을 도시 전역에 설치해 여러 개의 녹색 회랑(Corridor)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40년에는 두바이 인구 580만 명으로 약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20년간 시민, 주민,

관광객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두바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현대와 과거, 관광과 자연이 균형이 이루는 꾸준한 도시 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두바이를 포함한 UAE 건설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양한 배경상황에 맞춰 도시 개발의 배경과 그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두바이 정부는 두바이와 오만 국경 지대인 하타(Hatta)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UAE 거주민들의 여행 수요가 사상 최고조에 달함으로써 국내 여행 수요도 증가와 신규 여행지를 발굴하고자 하는 거주민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주기 위함이 그 배경이다. 두바이 정부는 정부 차원의 신규 관광지 조성 프로젝트로서 ‘하타’를 신규 관광 지역으로 선정해 세부 사업으로는 ‘두바이 마운틴 피크(Dubai Mountain Peak)와 ‘하타 지속가능한 폭포(Hatta Sustainable Waterfalls)’ 등 총 6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기 및 수도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23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저수조 시설, 해발 1,300m에 위치한 두바이 마운틴 피크, 케이블카 등 관련 시설과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두바이 정부는 하타 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 관광 도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타의 관광 도시 개발 사례는 엑스포 이후 두바이 관광 산업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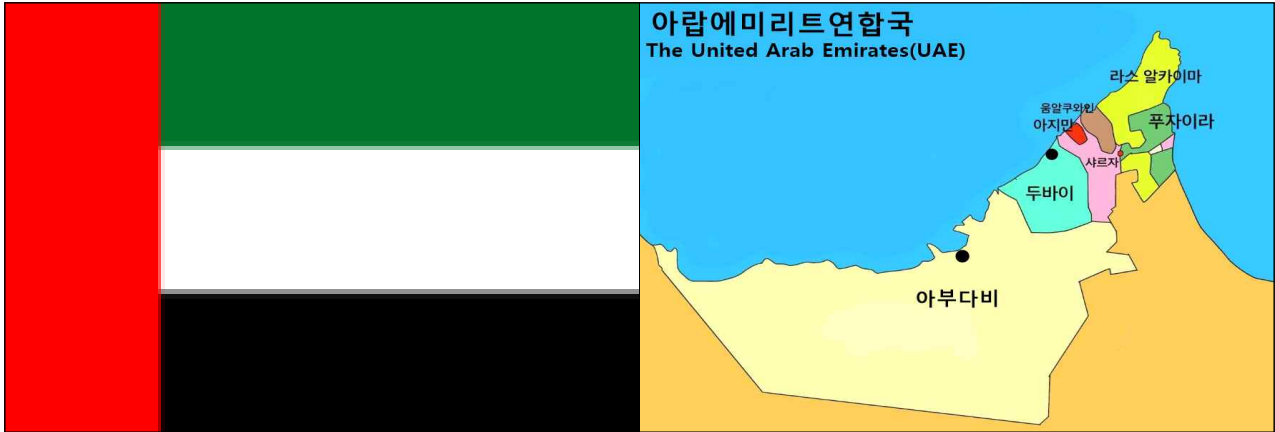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스마트 도시 개발 추진

- 마스다르시는 아부다비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신도시다. 탄소·자동차·쓰레기가 없는 3무(無) 도시를 표방,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마스다르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및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 마스다르시는 UAE의 미래를 담고 있다. 마스다르시티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고 있다.
-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마스다르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열 패널을 지면에 짓는다면,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쪽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년 전에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시켜 저장하는 기술도 개발했었다.
-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쓰레기를 무조건 땅에 매립하지 않고, 분리수거 후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한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IV 기대 효과

- 우리 시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미래 광역도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형태의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절실함
-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각지의 우려 속에도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연수계획과 준비를 통해 정책발굴의 연수가 되고자 함
- 연수 배경 부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을 통한 스마트시티, MICE 산업, 신재생 스마트시티를 통한 일자리와 관광의 극대화를 이룩한 산업국가를 이룩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고자 하며,
- 내실있는 활동 및 수집된 자료가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선진 정책을 체험하는 기회를 넘어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를 위한 안목을 넓히고,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V 국가 소개



국가명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nited Arab Emirates): UAE

수도 : 아부다비

최대도시 : 두바이

정치체제 : 연방제, 전제군주제하의 대통령제

대통령 :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총리 :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역사독립 : 영국으로부터 독립

독립 : 1971년 12월 2일

면적 : 83,600 km² (114 위) (한반도 100.210 km²)

시간차 : 한국과 -5 시간

공용어 : 아랍어

인구 : 9,890,400명 (2020년 기준 - (92위))

통화 : 아랍에미리트 디르함 (AED)

종교 : 국교 이슬람교 76% , 기독교 12.6% .힌두교 6.6%
불교 2%, 무종교 1%, 기타 1%

□ 개 관

-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영어: United Arab Emirates), 약칭 아랍에미리트 또는 UAE은 서남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에 있는 7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서, 소속 토후국은 아부다비 토후국, 두바이 토후국(두바이), 샤르자 토후국, 아지만 토후국, 움알쿠와인 토후국, 라스알카이마 토후국, 푸자이라 토후국 등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육상 국경을 접하며, 카타르, 이란과 해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의 인구는 약 920만 명이었는데, 이들 중 140만 명만이 아랍에미리트인이었고, 나머지 780만 명은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와 외국인들이다.
-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7위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첫 대통령이었던 자예드 대통령은 인프라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교육, 복지, 인프라 건설 확충에 쏟아부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두바이와 같은 대도시들이 중동의 금융 허브로 떠올랐고, 아랍에미리트는 관광업과 금융업 등이 발전하며 이전보다는 훨씬 덜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는 아부다비로서, 아랍에미리트의 정치, 산업, 문화의 중심지이다. 국내 최대 도시는 두바이이다.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협력 회의 창립 회원국이며, 아랍 연맹의 회원국으로, 국제 연합, 이슬람 회의 기구, 석유 수출국 기구, 세계 무역 기구에도 가입하며 지역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 정치형태

○ 아랍에미리트는 연방 입헌군주국으로, 7개의 세습 왕정 체제가 모여 세흐가 최고 수장으로 통치하는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중앙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움알쿠와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의 토후들로 구성된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이다. 다만 토후국들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의 관할은 오직 연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각각 토후국들에게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걷어 국정을 운영한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토후들을 이슬람의 칭호인 에미르 대신 세흐라는 칭호로 부른다. 세흐의 칭호는 부족 중심으로 나뉘어 있던 아라비아 반도의 전통이 현재까지 내려온 산물인데, 당시 아라비아에서 세흐는 지도자, 연장자, 혹은 부족장을 의미했는데 이 것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현재 아랍에미리트 토후국들의 공식적인 칭호로 자리잡은 것이다.

○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과 총리는 연방최고회의에서 선출된 보통 아부다비의 세흐가 대통령직을 맡으며, 두바이의 세흐가 총리직을 맡는다.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는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3개의 부로 나뉘어 있다.

입법부 :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데,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가 중추적 기능을 맡으며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가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 :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군권을 가지며, 그 외의 총리들과 각부 장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부 : 대법원과 하부 연방법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종교

○ 아랍에미리트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최대 종교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타 종교들도 관용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탄압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대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를 대가로 다른 종교 단체들도 이슬람교의 문제나 이슬람의 문제들에 간섭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에는 현재 31개의 교회가 있으며, 두바이에 힌두교 사원이 1개, 시크교 사원도 1개, 불교 사찰도 1개씩 있다.

2005년에 실시된 정부 조사에 의하면, 이슬람교 신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기독교가 13%이며 그 밖의 종교인들이 11% 미만이다.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인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들로 아랍에미리트에 워낙 인도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무슬림들 가운데에서는 97%가 수니파이고 3%만이 시아파로 대부분이 두바이나 샤르자에 거주하고 있다.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 와 술을 먹지 않고 라마단 기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 주요역사

- 이슬람 정착 이전 현재의 아랍에미리트 지역에는 아랍족들이 부족을 구성하며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가 지배할 때 이슬람이 이 지역에 실히 정착되었으나 페르시아 만 건너 이란의 영향으로 시아파가 침투하였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지배했으나 17세기에 영국이 포르투갈을 몰아내고 점차 이 지역을 보호령화시켰다. 그러나 번영국은 오직 자신을 제외한 외세 세력들이 아랍에미리트에 관여하지 못하게만 하는데에 그쳤고, 토후국 끼리의 내정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기에 토후들은 모두 국내 지배를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80년 6월에 대한민국과 정식으로 수교하였고, 대사관은 아부다비에 있고 총영사관은 두바이에 있다. 2009년 12월 27일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발주했다. 한국인은 대사관 가족을 포함하여 약 3,350명이 살고 있으며, 2020년 대대적으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진단키트를 먼저 받은 국가도 아랍에미리트였다.

VI 출 장 일 정

일차	방문지역	주요 일정	벤치마킹 사항
1 일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 두바이 도착 	
2 일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 무역센터 두바이 국제컨벤션 & 박람회 센터 주메이라 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계획을 통한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연중 진행, 각종 세미나, 이벤트, 라이브공연 등 국제무역 허브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MICE산업의 대표지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 (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 최대 매립지 개발사업 중의 하나
3 일	아부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u Dhabi CITYHALL (아부다비 시청) Masdar City (마스다르 시) 세이크자이드 모스크 두바이 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2040 두바이 도시계획 문의, 석유자원 고갈 대응과 친환경 도시개발 홍보사례, 시설 건설 시 주안점 공유 사막 한가운데 개발된 친환경도시,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 에너지 극대화 전략 견학 세계 5대 모스크, 세계 최대 양탄자 등 종교와 예술성에 대한 대중성을 활용한 시설 연구 세계 최대규모 연출용 분수, 우리시 수변 공간 도입 연구
4일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stainableCity Arabian ranches dubai (아라비안 랜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개발기업, 태양광 패널 건물, 주차장 설치, 태양반사와 에어컨 부하 감축 위한 방안 및 바이오돔 공간과 행정적 보상사례 공유

4일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 Seef • 두바이 스키시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공간을 따른 도시중심부 개발과 수상 시장, 택시, 레스토랑, 요트정착장 등 해양 유산을 활용한 도시개발 현장견학. 전통과 현대적 디자인을 융합한 사례 견학 • 눈 내리지 않는 두바이, 덥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눈이 내리는 스키장 시설 견학
5일	인두바이 사르자 두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르즈 할리파 타워 • 수크알 주베일 • 두바이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고 높이빌딩 828m , 대규모 복합 건물로 개발, 랜드마크 주변에 고밀도 개발 및 쇼핑몰 수익성 구축 성공사례 (삼성물산 건설 참여) • 전통시장에서 현대적 모습으로 완공, 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공원 역할로 가족과 방문 하는 추천지역 • 세계 최대규모 및 최다 방문 쇼핑몰 관광 불모지인 두바이가 세계 최대 쇼핑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시설적인 측면에서 접근, 주요 기업과 협약사례 자문
6일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공항 → 인천 도착 	

Ⅶ 출장단 구성

□ 구성인원 : 22명(의원 11, 기자 2, 의회 4, 집행부 4)

연번	직책	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성별	비고
1		박선전				
2		이국				
3		김성규				
4		김원주				
5		김현덕				
6		최명철				
7		최용철				
8		천서영				
9		남관우				
10		최주만				
11		박형배				
12		최명권				
13		정석현				
14		염형섭				
15		권동혁				
16		이강민				
17		박현천				
18		김현철				
19		김문기				
20		유인환				
21		송재만				
22		김은정				